

「사할린교포」도賠償청구

1992. 02. 09
경향

정부발원 日에挺身隊병행거론

태평양전쟁 당시의 종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할린 거주 교포들에 대한 피해배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측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日帝에 의해 강제된 끌려가 해방 이후에도 고국에 돌아 오지 못한 사할린 교포들의 피해배상문제는 그동안 개입적 차원에서만 제기되어 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과거사를 완전히 청산해야만 하는 의미에서 정부 차원에서挺身隊문제와 함께 사할린 교포에 대한 배상을 일 본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4만 2천여 명의 사할린교포 중 蘇聯이

나 북한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교포들은 이른바 무국적 자들에 대한 배상요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결과에 따라 이 蘇聯측의 국적을 취득한 등호들에 대해서도 배상요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와 함께 무국적 사할린교포들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도 검토

해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할린 교포 중 무국적 상태로 살아온 사람은 2천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炭鑛 강제노역 희생자 유족 50명

日에진상규명·보상요구

【全州=金昌坤기자】 일제 때 강제징용돼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端島)섬 미쓰비시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하던 유족 50명이 8일 오전 10시 정각

주식회사 노송을 삼아다방에서 「일본하시마희생자유족회」를 결성하고 일본정부가 「미쓰비시」에 사면진상규명과 보상요구를 요구하는

유족들은 성명에서 「하시마탄광에서 한국인 5백여 명이 강제노역을 하다 1백22명이 숨진 사실을 지난해 밝혀내고 일본인원단

을 통해 사면진상규명, 유족들은 성명에서 「하시마탄광에서 한국인 5백여 명이 강제노역을 하다 1백22명이 숨진 사실을 지난해 밝혀내고 일본인원단

유족들은 성명에서 「하시마탄광에서 한국인 5백여 명이 강제노역을 하다 1백22명이 숨진 사실을 지난해 밝혀내고 일본인원단

유족들은 성명에서 「하시마탄광에서 한국인 5백여 명이 강제노역을 하다 1백22명이 숨진 사실을 지난해 밝혀내고 일본인원단

유족들은 성명에서 「하시마탄광에서 한국인 5백여 명이 강제노역을 하다 1백22명이 숨진 사실을 지난해 밝혀내고 일본인원단

1992. 01. 28.

韓人전범 損害訴 첫공판

【東京=聯合】 2차대전 중 日本軍에 징용돼 연합군포로 감시원으로 있다가 전쟁이 끝나자 연합군측 재판에서 B급 및 C급 戰犯으로 몰려 사형 또는 장기 징역형으로 고문을 당했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

구소송의 첫공판이 27일오

전東京지방법관소에서 열

었다.

이소송과 관련된 일본정부

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

았다.

연합군측으로부터 사형

(후에 감형)선고를 받았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

구소송의 첫공판이 27일오

전東京지방법관소에서 열

었다.

이소송과 관련된 일본정부

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

았다.

연합군측으로부터 사형

(후에 감형)선고를 받았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

구소송의 첫공판이 27일오

전東京지방법관소에서 열

었다.

이소송과 관련된 일본정부

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

았다.

연합군측으로부터 사형

(후에 감형)선고를 받았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

구소송의 첫공판이 27일오

전東京지방법관소에서 열

었다.

이소송과 관련된 일본정부

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

았다.

연합군측으로부터 사형

(후에 감형)선고를 받았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

구소송의 첫공판이 27일오

전東京지방법관소에서 열

었다.

이소송과 관련된 일본정부

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

았다.

연합군측으로부터 사형

(후에 감형)선고를 받았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

구소송의 첫공판이 27일오

전東京지방법관소에서 열

었다.

이소송과 관련된 일본정부

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

았다.

연합군측으로부터 사형

(후에 감형)선고를 받았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

구소송의 첫공판이 27일오

전東京지방법관소에서 열

었다.

이소송과 관련된 일본정부

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

았다.

연합군측으로부터 사형

(후에 감형)선고를 받았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

구소송의 첫공판이 27일오

전東京지방법관소에서 열

었다.

이소송과 관련된 일본정부

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

았다.

연합군측으로부터 사형

(후에 감형)선고를 받았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

구소송의 첫공판이 27일오

전東京지방법관소에서 열

었다.

이소송과 관련된 일본정부

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

았다.

연합군측으로부터 사형

(후에 감형)선고를 받았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

구소송의 첫공판이 27일오

전東京지방법관소에서 열

었다.

이소송과 관련된 일본정부

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

았다.

연합군측으로부터 사형

(후에 감형)선고를 받았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

구소송의 첫공판이 27일오

전東京지방법관소에서 열

었다.

이소송과 관련된 일본정부

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

았다.

연합군측으로부터 사형

(후에 감형)선고를 받았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

구소송의 첫공판이 27일오

전東京지방법관소에서 열

었다.

이소송과 관련된 일본정부

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

았다.

연합군측으로부터 사형

(후에 감형)선고를 받았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

구소송의 첫공판이 27일오

전東京지방법관소에서 열

었다.

이소송과 관련된 일본정부

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

았다.

연합군측으로부터 사형

(후에 감형)선고를 받았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

구소송의 첫공판이 27일오

전東京지방법관소에서 열

었다.

이소송과 관련된 일본정부

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

았다.

연합군측으로부터 사형

(후에 감형)선고를 받았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

구소송의 첫공판이 27일오

전東京지방법관소에서 열

었다.

이소송과 관련된 일본정부

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

았다.

연합군측으로부터 사형

(후에 감형)선고를 받았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

구소송의 첫공판이 27일오

전東京지방법관소에서 열

었다.

이소송과 관련된 일본정부

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

았다.

연합군측으로부터 사형

(후에 감형)선고를 받았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

구소송의 첫공판이 27일오

전東京지방법관소에서 열

었다.

이소송과 관련된 일본정부

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

았다.

연합군측으로부터 사형

(후에 감형)선고를 받았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

구소송의 첫공판이 27일오

전東京지방법관소에서 열

었다.

이소송과 관련된 일본정부

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

았다.

연합군측으로부터 사형

(후에 감형)선고를 받았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

구소송의 첫공판이 27일오

전東京지방법관소에서 열

었다.

이소송과 관련된 일본정부

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

았다.

연합군측으로부터 사형

(후에 감형)선고를 받았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

구소송의 첫공판이 27일오

전東京지방법관소에서 열

었다.

이소송과 관련된 일본정부

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

았다.

연합군측으로부터 사형

(후에 감형)선고를 받았던

韓人출신 軍屬 및 그 가족이

제기